

AI 데일리 글로벌 마켓 브리핑

트럼프 관세 미루자 나스닥 급등

- 주요 지수, 저점 매수세 유입으로 전반적 상승. 나스닥 2.6% 급등
- 미 증시 반등에 '데드 캣 바운스' 가능성
- 엔비디아, AI 서버 매출 기대감으로 5.3% 상승

Summary

미국 증시 주요 지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발표가 없다 보니 무역전쟁의 긴장 고조에 대한 우려가 일부 완화되어 주요 지수가 깜짝 반등함. 다우존스 30 산업평균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674.62포인트(1.65%) 상승한 41,488.19에 마감하였으며, S&P 500 지수는 117.42포인트(2.13%) 올라 5,638.94를 기록함. 특히 나스닥 종합지수는 451.07포인트(2.61%) 급등한 17,754.09에 거래를 마칩.

뉴욕 증시의 급반등은 최근 주가가 과매도 상태라는 분석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된 덕분임. 최근 하락세가 컸던 기술주들이 특히 강하게 반등하며 시장을 이끌었고, 엔비디아는 AI 콘퍼런스 기대감에 5.3% 상승, 테슬라 역시 새로운 저가 모델 생산 계획으로 3.9% 상승함.

그러나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최저치로 급락하면서 향후 경기 우려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반등 흐름을 꺾지는 못함. 이 날 발표된 소비자심리지수는 57.9로 전월보다 큰 폭으로 낮아졌으며, 이 역시 시장의 조정 국면 뒤에 저가 매력에 중점을 둔 투자 심리로 해석됨.

모든 업종이 오름세를 보였고, 엔비디아와 테슬라 등 주요 기술주가 강세를 보이며 시장 전반적인 상승을 견인함. 국제유가는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상승, WTI 가격은 배럴당 67.18달러로 올라 거래를 마칩. 향후 주가의 반등 지속 가능성 여부와 함께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증시 변동성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계속해서 주목받고 있음. (다우 +1.65%, 나스닥 +2.61%, S&P500 +2.13%, 러셀2000 +2.53%)

특징종목

테슬라(+3.9%)는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비용 절감 전략을 발표하며 상승함. 엘론 머스크가 보유한 다른 회사들의 가치 상승 소식도 투자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엔비디아(+5.3%)는 쿼터 컴퓨팅 관련 기대감과 데이터 센터 칩 수요 증가로 인해 주목받으며 급등. 젊은 투자자들이 높은 보유 비율을 유지하는 것도 긍정적 요인으로 작용함. 마이크로소프트(+2.6%)는 AI 투자 전략 강화와 안정적인 수익성을 바탕으로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으며 상승세를 유지함.

울타 뷰티(+14%)는 4분기 실적이 월스트리트 예상을 훨씬 초과하면서 주가가 급등함. 새로운 CEO의 디지털 가속화와 새로운 마켓플레이스 출시 계획이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상승

세를 견인함. 도큐사인(+15%)은 강력한 실적 발표와 AI 기반 제품 성장으로 인해 긍정적인 전망을 얻어 주가가 상승함. 특히 핵심 사업 회복 과정에 있다는 CEO의 언급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크라운 캐슬(+8.6%)은 섬유 부문을 85억 달러에 매각하며 전략적 전환을 발표, 주식 매입과 배당 조정을 포함한 조치 때문에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음. 루브릭(+28%)은 예상치를 뛰어넘는 재무 실적 발표와 사이버 보안 수요 증가로 주가가 급등함. CEO가 사이버 공격 대비 준비가 충분하다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함. 세메치(+21%)는 4분기 실적이 기대치를 초과, 데이터 센터 수요 증가가 실적 개선에 기여하며 주가가 급등함. 이를 통해 반도체 및 IT 관련 종목의 미래 전망이 밝음을 보여줌.

리 오토(-4.4%)는 최근 발표한 1분기 매출 전망이 시장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면서 주가 하락을 기록함. 중국 전기차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가 리 오토의 향후 성장 가능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애보트(-2.5%)는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과 매출 둔화 전망이 겹치면서 주가가 하락했음. 일부 분석가들이 애보트의 장기적인 성장에 대한 우려를 제기한 것이 이러한 하락에 영향을 미침. 달러 트리(-2.2%)는 웰스 파고가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하고, 주요 투자 기관들이 주식 포지션을 감소시킨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함. 이는 회사의 성장 전망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반영한 결과로 보고 있음.

외환 및 상품 동향* 6시 10분, KST 기준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4.32로 고점에 가까운 수준을 유지하며 인플레이션 우려와 연준의 금리 인하 여력에 대한 제한을 시사함.

달러인덱스(DXY)는 103.72로 소폭 하락, 유로/달러는 1.09로 상승했으며, 이는 최근 소비자 신뢰 감소와 정치적 불확실성 완화 속에서 달러 약세가 이어진 것임.

WTI 원유 가격은 67.19 달러로 0.96% 상승, 브렌트유도 70.58 달러로 1.00% 상승하였음. 이는 에너지 시장에서의 약간의 회복세를 의미함. 금속 시장에서 금은 2983.53 달러로 일간 0.09% 하락, 은과 동은 각각 0.23%, 0.84% 하락하며 혼조세를 나타냈음.

다양한 상품 가격의 혼합적인 변동은 세계 경제 환경의 불확실성을 반영함. 향후 시장에서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정책 발표와 경제 전망이 달러 및 금리 방향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임.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인공지능(AI) 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으며, 금융투자분석사의 감수를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공지능(AI)기술을 사용하여 생성되었습니다. AI가 생성한 본 조사분석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정보 취득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하며, 신중한 판단과 추가적인 검증을 권장합니다. AI가 생성한 조사분석자료는 자체 검증과정을 거쳤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홈페이지 <https://securities.miraeasset.com> 에서도 이용할 수 있으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